

〈일반논문〉

미시시피계곡과 노예제도

양 홍 석 *

〈목차〉

- I. 서론
- II. 정치경제학과 강역(疆域)
- III. 미시시피계곡의 실험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의 국가론과 정치경제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해체하고,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향에서 그들의 정치철학과 아메리카니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강역”(疆域)에 초점을 두고, 제퍼슨과 메디슨의 관점을 살핀 뒤, 지금까지의 사학사적 접근 방법과는 다른 측면으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이 왜 미국적 예외주의와 노예제의 공고화에 기초한 국가 건설을 실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공간의 대한 논의는 국가 구성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성원권의 문제와 연결되고, 이는 당시의 다양한 계약이론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에릭 윌리엄스가 『노예제와 자본주의』에서 보여준 바, 미국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흑인 노예제와 면화산업,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퍼슨의 이상과 미시시피 계곡에서의 실험은 바로 이런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지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영농에 기초한 농본주의 성향을 지닌 제퍼슨의 강역문제와 인종주의에 대한 전망은 대통령이 되면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결국 미시시피의 계곡 실험에서 그의 제국론과 인종적 계서제가 확대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미시시피 계곡이 미국으로 편입과정과 아메리카시스템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무역금지법, 관세법이 노예무역과 노예수급문제로 연결되어 결국 국내문제로 비화되어 이 지역에 노예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의 진보가 내재적 발전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新유럽에서의 노예제와 자본주의 성장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퍼슨의 국가론과 정치경제학적 이상에 대한 재검토는 미국을 넘어 유럽을 포함한 트랜스내셔널 역사의 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제퍼슨과 그 추종자들의 정치철학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영토와 국가, 근대의 계약이론, 노예제, 자본주의, 미국적 예외주의, 그리고 유럽의 진보까지를 포괄하여 숙고할 수 있는 논의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 주제어

미시시피계곡, 토마스 제퍼슨, 자유의 제국, 이론과 실천, 루이지애나 영토

I. 서론

토마스 제퍼슨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역사가들의 지금까지 논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이론을 실천하기 위한 이상적인 국가의 크기에 대한 문제 즉 “강역”(疆域)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역사가들의

생각과 연구는 오직 미국 독립혁명에 대한 그의 기여, 그리고 최근에는 그의 인종주의의 기획과 한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¹⁾

건국초의 정치경제학 차원에서 보는 국토의 크기에 대한 생각은 결국 역사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제퍼슨의 정치철학과 정치 경제학의 이론과 함께 최근 그에 대한 인종주의 접근 모두를 포함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담론이 될 수 있기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유인즉 그의 정치경제학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단지 백인들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노예였던 인종, 즉 흑인을 연결하여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강역에 대한 관심은 결국 그의 인종적인 계서제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존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백인 인종주의에서 기초하여 국가와 제국 그리고 헌법을 각각의 분리된 차원에서 고려하고 연구해 온 단점을 해결하고 그런 파편화된 연구 과정에서 야기된 교착된 상태를 극복하여 연구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백인들과 다른 인종들과의 관계망을 고려한 제퍼슨의 “자유국의 제국”(Empire for Liberty)에 은유된 국토의 수준문제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²⁾

1) Arthur H. Schlesinger. “The State Right Fetish”, *New Viewpoints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1922); Merrill D. Peterson, *The Jeffersonian Image in the American Mind* (New York, 1960), 36-66; Bruce Dain, *A Hideous Monster of the Mind: American Race Theory in the Early Republ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1-39; Nancy Isenberg, *White Trash: the 400-Year Untold History of Class i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16).

2) Ira Berlin, *Many Thousands Gone: The First Two Centuries of Slavery in North Americ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9-10장; Richard Slotkin, *Regeneration through Violence: The Mythology of the American Frontier, 1600-1800* (Middletown, Connecticut: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은 제퍼슨의 저작에서 거의 수사학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저 유명한 “인용구”를 맹목적으로 인용하면서 “강역”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는 그의 수사학적인 문장이 가진 기표와 기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정의하고 무시하고 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음에도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절묘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³⁾

오늘날 미국사 교과서에서부터 수준 높은 연구사의 책과 논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상식이라는 듯이 건국초의 정치경제학적인 가치를 자영농 공화주의(yeomen's republicanism)이란 말로 지나칠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자영농이란 바로 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으로 정의하고, 그러므로 주권론(州權論)적 작은 국가를 이상으로 생각했다고 미국의 역사학은 “신속하게” 정의하여 왔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제퍼슨의 진술을 가져와 강조하게 된다면 그렇게만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⁴⁾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3), 245-247; Jefferson to Madison, April 27, 1809, *Jefferson Writings*, 12:277, quoted in James E. Lewis, *The Louisiana Purchase: Jefferson's Noble Bargain?* (Chapel Hill: Thomas Jefferson Foundation, 2003), 8; Dain, *A Hideous Monster of the Mind*, 1-39; Thomas Jefferson,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ed. William Pede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55), 164-165; Thomas Jefferson to John Lithgow, January 4, 1805, in *The Writings of Thomas Jefferson*, ed. Andrew A. Lipscomb and Albert E. Bergh (Washington, DC: Thomas Jefferson Memorial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1903-1904), 11:55-56; Madison to Lafayette, March 20, 1785, in *The Papers of James Madison*, ed. William T. Hutchinson et al., 17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1977;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77-1991), 8:250-251.

3) Jefferson,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164-165

4) Adam Rothman, *Slavery Country: American Expansion and the Origin of*

이제는 진부할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해석에서 막연하게 그의 “강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 결국 그의 정치경제학을 실천 할 수 있는 영역은 작은 국가관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부분 제퍼슨의 생각이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한 독해가 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시나 간과하는 점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의심은 여전하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가 생각하는 논의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전복적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가들이 제퍼슨의 문장에서 자영농의 문제 그리고 백인의 짐과 책임들을 읽어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뚜렷해서 특별히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국가의 수반이 되기 전에 그린 이상적인 그림에 불과하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보다 큰 국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가 말하는 자영농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노예를 포함한 인종적인 질서는 어떤 설계도인지는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전제가 허락된다면 제퍼슨이 실제 정책 결정자로서 국가의 “강역”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⁵⁾

the Deep South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54-70; Walter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pp.18-45; 양홍석, 「미국국가기원론에 대한 논의-州州權論(States Right)의 탄생과 발전-」, 『동국사학』 41, 2005; 양홍석, 『美國政治文化의傳統과 展開-잭슨시대(Age of Jackson)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1999), 34-92쪽; 하성호 지음·양홍석 옮김, 『아메리칸 시스템의 흥망사, 1790-1837』, 학고방, 2014, 50-59쪽, 88-121쪽.

5) Francois Furstenberg, “Beyond Freedom and Slavery: Autonomy, Virtue, and Resistance in Early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Journal of Ameri-*

실제 제퍼슨의 위대한 경구 “(지상의) 땅을 경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 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하면서도 크고 순수한 도덕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바로 자영농의 공화정, 또는 주주권에 기초한 작은 국가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응당 보다 큰 영토가 필요해진다는 점이다. 누구나 적당한 토지를 가질 수 있고 자립적 차원에서 각각의 국가의 시민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증가되는 인구의 현실 속에서 작은 국가로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미국이 예외적인 국가를 되기 위해서는, 더 크게는 그런 이상향을 미국 백인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는 “강역”은 한 때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큰 영토가 필요하며 제퍼슨은 그런 생각을 실천하고 있었다.⁶⁾

그러므로 제퍼슨은 기꺼이 자영농과 이상적인 국가의 이론으로 주주권을 주장하였던 사람이지만, 결국 실천력 있는 국가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는 미국의 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험을 바로 그가 구입한 미시시피 강과 그 계곡의 영토를 중심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an History 89 (March 2003), 1295-1330; Peter S. Onuf, “‘To Declare Them a Free and Independent People’: Race, Slavery, and National Identity in Jefferson’s Thought,”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8 (Spring 1998), pp.1-46; Rothman, *Slavery Country*, pp.54-70;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pp.18-45.

6) Jefferson,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pp.164-165.

II. 정치경제학과 강역(疆域)

〈연방주의자론〉(Federalist) 제10번에서 1787년 제임스 매디슨은 서구의 오랜 역사를 통해 정립된 정치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통적 서양 정치철학에서 고려된 이상적인 국가의 모범적인 크기를 연구하고 고전시대의 역사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숙고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내고자 한다. 그런 전제에서 고전 시대 그리스와 로마의 국가의 크기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른바 전통적인 강역론(疆域論)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제 새 국가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⁷⁾

고전 시대의 국가들이 독재로 이어져 타락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 이유는 과도하게 영토를 확대하였고 그 확대된 영토에 대한 통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가 가져온 역사적 교훈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민주적인 시민정부로는 계속해서 확대된 광대한 영토를 운영할 수 없었기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멸망이라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⁸⁾

결국 과도한 팽창으로 국가의 경계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새로운 국가에서 영토와 지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 미국 “독립 선언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에서부터 미국의 국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제한 헌법을 만드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른바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까지도 그 문제에 집착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상 전

7) Gordon S. Wood, *The Radicalism of the American Revolu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92).

8) Jefferson,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164-165; Wood, *Ibid.*; Dain, *Ibid.*

무후무한 실험, 즉 국가의 청사진을 오직 토론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심사숙고한 기획이 요청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정치경제학적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그들 앞에 전개되는 신대륙의 역사와 지리는 결코 그런 조건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하게 펼쳐진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이제 그들 앞에 전개되는 광활한 영토를 안아가는 현실에서는 국토의 크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신이 부여한 이 영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로 선회하게 된다. 미국의 중요한 건국의 인사들은 그리스·로마가 영토의 광역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멸망하였다는 이론에서 벗어나서 그들만의 독특한 공간과 지리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 사례에서 단연코 뛰어난 모범이 되는 인물이 토마스 제퍼슨이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구상의 최초의 인공적인 국가 건설에서 “강역”을 새롭게 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던 강역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국토란 될 수 있으면 확대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 정체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확대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찾기 어렵다. 그들 앞에 전개되는 이 신생국가의 지리적 광대성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세계”라는 전통적인 사회의 경험을 체감한 것에서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공적, 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여유 공간 부족 문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이다.¹⁰⁾

9) Ibid.

10) Wood, Ibid.; Johnson, Ibid., pp.18-45; Isenberg, Ibid.

이유가 어쨌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큰 “강역”아래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부 운영 능력을 가진 인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인재가 국가를 운영하게 될 때 보다 능률적으로 통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큰 땅과 큰 강에서 선택된 인재가 뛰어난 자질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 하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적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그의 이러한 정치 철학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는 별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퍼슨이나 메디슨과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전통적인 ‘강역’에 대한 집착에서 한 발 물러나서 완전히 다른 생각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¹¹⁾

제퍼슨의 생각의 전환을 확인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그가 메디슨에게 쓴 편지이다. 그는 편지에서 현재 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영토를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넓은 여유 공간에서만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최대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자유의 제국(Empire for Liberty)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어떤 국가보다도 큰 강역을 필요로 한다. ... 이러한 강대한 제국과 그 속에서도 독립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권 정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헌법에 상정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¹²⁾

제퍼슨이 하나의 국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자유를 이야기 할 때,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국토의 강역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선상에서 그가 말하는 제국의 개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도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

11) Wood, Ibid.

12) Jefferson to Madison, April 27, 1809, Ibid., 84.

지는 그가 자영농과 작은 국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 동양적인 언어로 말하면 노자의 소국과민론(小國寡民論과민론)과 일맥상통하는 말을 제퍼슨은 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가 대통령으로 국정의 수반으로 있을 때는 달랐다. 그는 이제 누구보다도 광대한 영토를 가진 이상적인 제국을 꿈꾸고 실천하고 있었다. 실제 그는 미국의 어느 팽창주의 대통령보다 많은 영토를 미국이라는 이름에 올리게 된 인물이다. 제국으로 그가 확보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미시시피 계곡이었다, 그곳은 그가 상상의 지리학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는 “강역”이 실제적인 공간으로 실현될 수 있는 꿈의 지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³⁾

상상을 초월하는 영토를 쉽게 얻게 되고 그 땅이 거의 유럽 대륙의 크기에 맞먹는 것이라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었다. 제퍼슨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야만인이 살아왔던 이 신천지에서 인디언을 제거하고 나면 원시적인 자연만이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에게서는 이 이상 더 좋은 기회가 없어 보였다. 그는 이상적인 국가를 바로 이 땅을 중심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눈에 인디언은 보이지 않았기에 이 땅은 백지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책상에서 어떤 장애물도 없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그는 자신의 경험, 독서와 유럽에서 여행을 보고 느낀 장애를 이곳에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이상적인 국가 설계도를 그리게 된다.¹⁴⁾

제퍼슨의 생각에서 이 지역은 전통사회, 바로 유럽에서 점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접근할 수 없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했다. 특히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제조업이 탄생시킨 불행한 시민들이 이 땅에서는 결

13) Ibid.

14) Jefferson,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164-165.

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조건에서 그는 농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자립경제가 서야한다고 생각했다. 농본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이 지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¹⁵⁾

제퍼슨은 한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 그들은 진정한 국가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 누구의 영향력 안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진정 공화국을 지탱하는 자립 인간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¹⁶⁾

이런 전제 조건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강역”은 전통적인 서양의 지역에서 보고 있던 생각들과는 달랐다. 고전사회의 국가 영토의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과 이상 또한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천지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미 유럽은 인구 대 토지 비율에서 볼 때 최악의 길로 가고 있었다. 제퍼슨은 신생국 미국은 유럽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물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도시 중심의 삶에서 이미 “타자”화된 구차한 삶들을 결코 자신의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¹⁷⁾

제퍼슨은 이 신천지인 미국에 유럽처럼 공장속의 부속품으로 점철되고 소외된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이거나 거의 노예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불행한 상황을 수입하고 싶지 않았다. 유럽의 노동자 농민들은 누구나 임금에서 또는 토지에서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제퍼

15) Ibid.

16) Ibid.

17) Ibid.

슨의 시각에서 그들 유럽의 노동자 농민들은 자유로운 주권자도 될 수 없어 보였다. 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말해 그들은 오직 주인님의 시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결국 그 열개를 맺어 놓은 사람들의 노리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⁸⁾

제퍼슨은 “자유의 제국”에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강역”권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영토 확대가 시민 각각에게 충분한 자립경제의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기왕의 미국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확대된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다음 바로 이 신천지에 인구를 이주하려고 생각했다 제퍼슨이 지금까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상적인 공화정 즉 소농중심의 농본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강대한 영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바로 그의 그런 정치경제학적 구상 속에서 “자유의 제국”은 실천될 수 있었다.

애팔래치아 산맥을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전제에서 성립될 수 있었다. 그는 이어서 미시시피 강을 미국의 위대한 자유의 제국을 실현 할 수 있는 “자유의 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무한정하게 펼쳐지는 이 자연이 미국의 자유를 위해서 준비된 “천혜의 조건”(givenness)라고 한 역사가가 조망했던 것과 같은 동일 생각을 그는 이미 하고 있었다. 미국만이 신의 특혜를 특별히 선사받은 곳이었다. 그가 기꺼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의 구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다.¹⁹⁾

새로운 개척지를 향한 영토 확대를 통해서 유럽에서 본 악폐들을 영원

18) Ibid.

19) Daniel J. Boorstein,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Chicago: Phoenix, 1958); *The Americans: The National Experience* (New York: Vintage, 2010).

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천지에서 주체적 인간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생계를 타의 힘에 의존 하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의 타락과 파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천혜의 조건으로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퍼슨은 이를 통해 산업혁명이 야기하고 있는 낭만주의적 노동과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았다.²⁰⁾

제퍼슨은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미국을 중심으로 실천하려고 한 인물이다. 스미스가 일찍이 경제학자로서 일국의 시장 체제와 그 속에서 분업의 효과를 증명해 볼 수 있었다면, 제퍼슨은 그것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 간의 분업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한 정치 경제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산업혁명에 대한 전개와 그 부작용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당사자였다는 측면에서, 이 둘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²¹⁾

이유인즉 제퍼슨은 제조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갖게 되는 부작용으로부터 미국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농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신대륙의 국가와 국민은 이상적일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정치경제학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면 신생국가 미국은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패러다임으로 설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낙관론자가 바로 그였다.²²⁾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자영농의 이상적인 제국이 과연 유럽의 여러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산업국가의 모순과 질곡보다도 더 위험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우의 수를 그는 아직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가 유럽의 경험에서 알게 된 불행을 이제 이곳 미국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방법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다. 그

20) Jefferson to John Lithgow, January 4, 1805, in *Ibid.*, 11:55-56.

21) *Ibid.*

22) *Ibid.*

는 유럽의 노동자들에게 본 혹독하고 잔인한 노동의 실제보다 더더욱 잔인한 상황이 신대륙의 새 영토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가 만든 것은 장차보게 될 것이지만 잔인한 인종적 계서제와 비인간적 노동문화에 불과한 디스토피아가 되었던 것이다.²³⁾

제퍼슨은 새롭게 미국 영토로 확대되는 지역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될 수 있을 전제조건으로 우선은 노예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예 없이는 자영농의 생존과 경제적인 번영의 기초가 가능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또한 이 지역이 워낙 거대한 지역이라 막상 노예제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유인즉 이 거대한 자연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가 가진 역기능을 녹일 수 있는 안전판의 역할을 특특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넓혀지는 지역이 너무나 광대하기에 과거 아이티에서 일어나는 노예들의 혁명과 같은 공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이티의 경우에는 좁은 영토에서 노예들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일어나는 문제였다. 반면 미국은 아이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영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제퍼슨은 넓은 영토가 노예제가 야기할 위험은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믿고 있었다. 노예들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 넓은 지역에서 분산될 것이고 결국 시민사회의 문명권내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제퍼슨은 흑인은 열등한 존재라고 보고 그들은 문명의 조건에서 뒤떨어진 인종이라 어느 순간에 백인들의 문명권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²⁴⁾

23) Ibid.

이래저래 제퍼슨의 정치경제학에서는 무엇보다도 넓은 영토가 그리고 강력한 제국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기록된 자영농과 작은 공화국의 신화와 영토관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가 되기 전에서 느끼는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국가의 수반으로서 강역을 보는 시각은 지금까지의 관점과는 다른 생각과 실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제퍼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III. 미시시피계곡의 실험

최초의 세계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7년전쟁(Seven Years War, 1756-1763)의 처리 과정에서 프랑스는 스페인에게 루이지애나 지역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 무려 828,000평방마일에 이르는 면적이었다. 이 범위는 미시시피강 서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른바 대륙분수령(Continental Divide)라고 불리어지는 로키산맥까지 뻗어간다. 결국 스페인은 미시시피 계곡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이유이다. 물론 이 지역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뉴올리언스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 신생국 미국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이 꿈꾸는 자유의 제국을 향한 발걸음에 장애물이 생긴 꼴이

24) Furstenberg, *Ibid.*, 1295-1330; Onuf, *Ibid.*, 1-46; Everett S. Brown, ed., "Documents: The Senate Debate on the Breckinridge Bill for the Government of Louisiana, 1804," *American Historical Review* 22:2 (January 1917), 354; U.S. Census, 1820, 1840, 1860; Thomas Jefferson to St. George Tucker, August 28, 1797, reprinted in Julian P. Boyd et al., eds., *The Papers of Thomas Jefferson*, vol. 2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2011), 519.

다. 특별히 국민국가의 신장에서 볼 때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뉴올리언스가 스페인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막혀 버린다는 느낌이 든다. 제퍼슨이 “이 지상에서 오직 나의 신경을 쓰게 하는 장소가 하나 있다. 그곳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 바로 우리의 살아 갈 영토와 지리 그리고 생활권 측면에서 (우리의) 적이다.”라는 언급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그곳은 바로 미국의 생명선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는 “뉴올리언스”는 미시시피 계곡의 광대한 영토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두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곳이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은 미국이 장차 세계 경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길목에서 지정학적으로 결코 다른 국가에 장악 하에 두어서는 안 되는 동맥이요 심장이었다.²⁵⁾

결국 이 문제는 1795년 산로렌조조약(Treaty of San Lorenzo)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미국사에서는 핑크니조약(Pinckney's Treaty)으로 알려진 명칭이다. 그러나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산로렌조조약(Treaty of San Lorenzo), 마드리드조약(Treaty of Madrid)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이유인즉 1795년 10월 27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약 47km 떨어진 소도시 산 로렌소 데 알 에스코리알(San Lorenzo de El Escorial)에서 조인된 조약이기 때문이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스페인과 미국 간의 강화, 제한, 항해 조약’(Treaty of Friendship, Limits, and Navigation Between Spain and the United States)이다. 미국 측은 토마스 핑크니(Thomas Pinckney), 스페인 측에서는 돈 마누엘 데 고도이

25) Jefferson to Robert Livingstone, Ibid.; Gibert Din, “Spain’s Immigration Policy in Louisiana and the American Penetration, 1792-1803,” *Southern Historical Quarterly* 76 (January 1973), 255-276; Arthur Preston Whitaker, *The Mississippi Question 1795-1803: A Study in Trade, Politics, and Diplomacy*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1934); James E. Lewis, Jr., *The American Union and Problem of the Neighborhood*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9), 25-32.

(Don Manuel de Godoy)가 협상 테이블에 참석하였다. 미국과 스페인간의 갈등 소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 국가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와 협력과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1796년 2월 26일 미국 상원에 제출된 조약은 토론을 거쳐서 1796년 7월 3일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 스페인도 1796년 4월 25일 정식으로 승인이 떨어지게 되자 1796년 8월 3일부터 효력은 발생했다.²⁶⁾

이 조약으로 양국의 국경선 조정과 미시시피 강의 항해권 보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웨스트 플로리다 영토문제(West Florida Controversy)가 해결된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뉴올리언스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항해보장권을 확보하게 된다.²⁷⁾

항해보장권이 중요한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이제 미국은 대륙의 가장 먼 거리나 오지에서부터 생산된 그 막대한 농업 생산 물자와 각종 자원이 미시시피강의 유통망을 통해서 다시 동부해안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서양문명권으로 유입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큰 성과물은 있을 수 없었다. 미국 측에서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또 있었다. 상업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이 있었으니 바로 관세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뉴올리언스가 스페인의 완전한 통치하에 운영되고 있을 때는 이곳을 경유하는 선박이나 물산은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조약으로 인해 스페인 세관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수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해도 만사가 미국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위험한 이야기가 흘러나 오고 있었다. 스페인이 미국과의 조약을 무시하고 이제 다시 루이지애나

26) Ibid.

27) Rothman, *Slavery Country*, 54-70;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18-45.

지역을 프랑스에 넘기는 비밀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었다.²⁸⁾

소문은 얼마 있지 않아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곧이어 프랑스는 이른바 자신들만의 태양의 제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프랑스를 움직이고 있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식민지 중에 하나인 아이티와 루이지애나를 결합하여 모국 프랑스 제국을 위한 영원한 젖줄로 만들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1791년 바로 그 해에 아이티에서는 세계역사에서 놀라운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는 흑인 노예들의 위대한 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자유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신분투쟁 또는 입법투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곧이어 자유를 얻고자 하는 흑인 노예들의 해방투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로마 공화정시대의 12동판법 이후 거침없이 전개되어 나오는 입법투쟁의 기록과 흡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백인들의 눈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유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박약한 흑인노예들에게서 터져 나온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물꼬가 여기 서인도제도에서 흑인 노예들의 마음속에서 뿜어 나온 것이다.²⁹⁾

이 섬의 정치적 권력 구조에 대한 흑인들의 저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들 흑인들은 인간으로서의 분명한 가치와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놀

28) Ibid.

29) Robert L. Paquette, "Revolutionary Saint Domingue in the Making of Territorial Louisiana," in *A Turbulent Time: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Greater Caribbean*, ed. David Barry Gaspar and David Patrick Geggus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1997), 218;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an Revolution*, rev. 2nd ed. (New York: Vintage Books, 1963), 45-46; Laurent Dubois, *Avengers of the New World: The Story of the Haitian Revol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Jefferson to Robert Livingstone, April 18, 1802, The Thomas Jefferson Papers, Ibid.

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까지 노예는 바로 인간상품에 불과하지 않았다. 특히나 식민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착취와 계급에 고통을 겪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는가. 이중으로 통제받고 있었던 그들이 노예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인상 깊은 역사의 장면이다.³⁰⁾

노예들은 무기를 들었다. 주도자는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 Overture, 1743-1803)였다. 그는 노예제의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어서 1804년에 오면 아이티는 더디어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나폴레옹이 꿈꾸었던 태양의 제국에 대한 기대는 송두리째 날아 가버린 것이다.³¹⁾

제퍼슨은 프랑스의 딜레마를 이용할 생각을 갖게 된다. 그는 1803년 즈음에 오면 영토 확장을 기대하는 모험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뉴올리언스 항을 영구히 소유하여 내지 교통과 상업무역의 생명선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물론 대통령만의 요구가 아니었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이 항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행운의 여신은 다시 미국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예상치 않은 반응이 온 것이다. 그들은 미국이 희망하고 있는 문제의 뉴올리언스 항을 포함하는 빅달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프랑스는 더 많은 보따리를 풀어줄 태세가 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미시시피 강 서안을 포함한 루이지애나 전 지역을 기꺼이 미국에 이전할 의사를 전하였다. 그 땅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그 당시의 미국의 영토와 맞먹는 땅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거대한 영토에 대한 지불 조건으로 그들이 요구한 금액은 단지 1,500만 달러였다.³²⁾

30) Ibid.

31) Ibid.

32) Whittaker, *The Mississippi Question*, 11-15장; McCoy, *The Elusive Republic "Political Economy in Jeffersonian America"* (New York: W. W. Norton, 1980), 196-203; Lewis, Jr., *The American Union*, 25-31; Peter Onuf, "The Expanding Union," in *Devising Liberty: Preserving and Creating*

루이지애나 구매(Louisiana Purchase)는 “세기의 거래”(bargain of the century)라고 불리어진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불과 20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제퍼슨을 비롯하여 미국의 대다수의 정치가들은 그런 거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허튼 짓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루이지애나 구매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양 국가가 이 거래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와 관심이 합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 했지만 프랑스 제국내의 한 섬에서 일어난 정치적 혁명이 바로 그런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³³⁾

다시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적대적이 되었다. 미국 측면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양국에 물자를 판매하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고 있었다. 한편으로 양 국가는 미국 상선을 나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제퍼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였다. 갈수록 피해가 높아만 가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제퍼슨이 상하원에 대책 법안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는 1807년 12월 그 법안을 통과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항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금지한다는 의견이다. 미국 국적 선박이든 또는 여타 외국 국적 선박이든 미국의 항구에서 수출 물량을 선적하는 것도 금지하게 된다. 이른바 금수법(Embargo Act)이 시행되었다.³⁴⁾

Freedom in the New American Republic, ed., David Thomas Koni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53; Ronald D. Smith, “Napoleon and Louisiana: Failure of the Proposed Expedition to Occupy and Defend Louisiana, 1801-1803,” *Louisiana History* 12 (Winter 1971), 36-39.

33) Ibid.

34) McCoy, *Elusive Republic*, 216-223; “Memorial: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19 September 1808, in Clarence Carter, ed., *Territorial Papers of*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수출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규제였다.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영국의 선진 기술 제품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었다. 특히 남부가 그런 입장이었다. 물론 미국 농산물 생산업자들에게 수출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에서도 남부의 경제적인 이해가 걸려있었다. 북부도 좋을 수만은 없었다. 뉴잉글랜드 지방과 뉴욕의 해운업과 상업에 집중하는 지역에서도 금수법의 충격은 컸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1808년 오면 금수법에 대한 세부 시행 조치를 발표하게 된다. 그 조항들은 결국 북부 지역에서의 분노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³⁵⁾

국내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유럽에서도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태세였다. 결국 대통령 제퍼슨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영국의 면화 상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상품 가격을 조정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재고가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었고, 물량의 유통이 불가능해지자 고스란히 손해를 앓아서 당하고 있었다.³⁶⁾

나폴레옹은 미국 상선의 나포를 자랑스럽게 떠벌이고 있었다. 그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자신의 준비된 의도였다고 주장하였다. 일이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자 미국에서는 연방당을 주도하고 있었던 티모시 피커링(Timothy Pickering)가 사태를 이용하여 여당을 곤혹하게 만들

the United States, 26 vols ,638; American State Papers: Commerce and Navigation, I. 813-817, 866-871, 889-894; Richard E. Elish, *The Union at Ris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19-107, 237-42.

35) Ibid.

36) Ibid.

고 있었다. 그는 나폴레옹이 작금의 사태의 결정적인 장본인이라고 단정하고 결국 그 음모에 걸려들었던 미국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퍼슨은 현재의 레임덕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최악의 곤경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제 몇 안 남아 있는 선택지를 쓰기로 하였다. 1809년 3월 1일 그 날은 그의 두 번째 임기가 거의 끝나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그는 비통상법(Non-Intercourse Act)에 서명을 하고 만다. 그 내용인즉슨 미국은 이제 여러 나라와 통상은 허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단 두 나라를 그 허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가 그 두 국가이다.³⁷⁾

단지 이와 같은 법률안의 통과 방식으로는 쉽게 소란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무역업자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하는 관세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싸여가고 있었다. 사실 연방 정부 수입의 거의 다가 관세를 거두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었다.³⁸⁾

국가가 관세를 부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기간에는 사실 보호무역적인 관세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경제 자주독립주의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세계경제와 국민경제의 갈등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물론 당시의 미국 관세를 단지 보호무역차원의 문제라고는 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가의 재정 수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세였다. 적어도 1816년까지 미국 관세는 국가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³⁹⁾

이러한 법률 조치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37) Ibid: 양홍석, 「미국국가기원론에 대한 논의」, 182-183; 양홍석, 『美國政治文化의傳統과展開』, 34-92.

38) Rothman, *Slavery Country*, 54-70.

39) Ibid: 하성호, 『아메리카시스템의흥망사』, 70-77.

에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척지이자 봄을 형성하고 있는 미시시피강 수계의 상업과 경제 활동에 주는 충격을 보면 놀라운 것이다. 우선 국민국가의 측면에서 국토의 확고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미국의 국가 부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생명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 더더욱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시피 수계의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뉴올리언스를 국가가 관세를 통해서 확고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한 보기가 되는 것이다. 국민경제와 세계경제가 구분되는 변경지역에서 국민경제의 우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퍼슨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입법과 이어서 관세법의 확충은 그런 취지를 보여주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더 나아가서 루이지애나 영토의 구입도 바로 그러한 경제 만들기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상업과 농업 활동을 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국민경제의 의지가 그들의 이해와 상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산을 이동하고 대서양 너머에서 선진 물건을 수입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문제의 범람이 그들의 경제적 이해와 상충될 수 있었다. 관세는 그들이 쉽게 수궁할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⁴¹⁾

특히 그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든 것은 바로 1808년 만들어진 여러 법안 중에 하나였다. 그 법안 중에는 미국과 대서양의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도 있었다. 길고도 긴 이름을 가진 대서양노예무역금지법안은 1807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실질 효력은 18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그

40) Ibid.

41) Ibid.

해가 특별히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이유이다. 어쨌든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자 미시시피 지역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은 새로운 농업 개척 지역이라 많은 사람들이 광활한 땅에 면화 생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당연히 “인간상품”라고 할 수 있는 노예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었다.⁴²⁾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여러 법률 조치는 지금까지의 이 지역의 물류이동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게 만든 것이다. 국민국가의 차원에는 좋은 것(?)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신 물류 루트를 찾게 만들었다. 바로 외국에서 들어올 수 없는 인간 상품을 이제는 국내차원에서 확보하려는 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 노예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든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⁴³⁾

지금까지 이 신생국가는 농업 경제의 노동력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인간상품에 의존하여 왔다. 사실 미국은 “노예소유”(slaveholding)경제와 “노예무역”(slave trading)경제가 거의 구분되지 않고 실행되고 있었다.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노예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와 운영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노동력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면화 생산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것이 경제의 한 축이라면 그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무역도 중요한 경제의 한 부분이었다. 그럼으로 이 두 가지 경제적인 효과와 가치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⁴⁴⁾

그런데 1808년 대서양 노예무역금지를 선언으로 입법차원에서 확고한

42) Ibid: *An Act to prohibit the importation of slaves into any port or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from and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43) Ibid.

44) Ibid: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27-30.

결의를 만들어내자 기왕의 이러한 무역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인간상품”의 물류 이동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랬다. 물론 미국의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무역도 그 의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인즉 그 법안은 1807년 금수법과 함께 미국이라는 신생 국가가 새로운 차원에서 그들만의 경제적 자주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비인간적인 거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체적인 “생산과 유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비록 죽음의 상인보다 더한 비정함이 숨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⁴⁵⁾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개척지인 이 계곡을 중심으로 과연 노예제도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대서양 노예무역 금지도 같은 선상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 잔인한 노예무역을 금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머니즘적인 틀에서 이런 법률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해서 문제의 법률이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실 역사에서는 의도와 결과가 무수히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바로 대서양 노예무역 금지 조치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⁶⁾

45) Ibid.

46) Rothman, Ibid; Paquette, “Revolutionary Saint Domingue in the Making of Territorial Louisiana,” 212; “Memorial to Congress by Permanent Committee of the Natchez District,” October 23, 1797, reprinted in Carter, *Territorial Papers of the United States*, vol. 5, 10-11; Everett S. Brown, ed., “Documents: The Senate Debate on the Breckinridge Bill for the Government of Louisiana, 1804,” *American Historical Review* 22:2 (January 1917),

또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노예제도의 확산은 결국 반인륜적인 것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차원에서 대응하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시야에서 볼 때 새롭게 미국 영토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노예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언젠가는 이 지역이 노예제도의 찬반을 놓고 갈등과 분쟁 그리고 국가의 파국으로 나아가는 화약고가 될 것이고 생각하여 법률을 통해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⁴⁷⁾

그것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노예 폭동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이미 아이티에서 그런 일은 있었다. 그리고 이 혁명에 참여했던 노예들이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하여 뉴올리언스에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물론 이 혁명의 공포를 경험했던 아이티의 백인들도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단지 그 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예언을 하고 있었다. 얼마 있지 않아 일어난 1811년 루이지애나 독일해안폭동(Louisiana's German Coast Slavery Insurrection)은 그 예언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위기와 근심을 반영하듯 새로운 미국의 이 거대한 영입지역에 노예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었다.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무시무시한 공포를 야기하게 될 노예제도의 악을 ...막는 것이고 그럼으로 생 도밍고의 그 비극을 피하는 것이다.”⁴⁸⁾

354.

47) Rothman, *Ibid*; Paquette, *Ibid*.

48) Paquette, “Revolutionary Saint Domingue”, *Ibid*; Daniel Rasmussen, *American Uprising: The Untold Story of America's Largest Slave Revolt* (New York: Harper Perennial, 2012); Albert Thrasher, *On to New Orleans: Louisiana's Heroic 1811 Slave Revolt* (San Francisco: Cypress Press, 1996); Junius P. Rodriguez, “Rebellion on the River Road: The Ideology and In-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포도 미국 경제의 변명과 발전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견해도 강력한 것이었다. 어쩌면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가 계속된다면, 이 지역은 면화를 통해서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농업적 자본주의로 이행되면 결국 세계경제를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 천혜의 자연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제는 이 작물을 생산하는데는 남다른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백인들이 그런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 백인들의 관점에서 보아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였다. 백인은 혹독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버린 그들 표현대로 말해서 “문명화 된 인종”이 아닌가?⁴⁹⁾

그러나 흑인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들은 여전히 자연과 함께 하는 야만의 생활을 지속해왔던 인종이다. 그럼으로 자연이 주는 그 가혹함도 견뎌 낼 수 있는 인종이다. 특히나 미시시피 계곡의 남쪽 지역의 농업노동의 그 악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야만상태의 인종으로 최적이라고 보았다. 그들이 없이는 루이지애나 준주지역은 “거의 가치 없는 ...황무지라고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⁵⁰⁾

fluence of Louisiana's German Coast Slave Insurrection of 1811," *Anti-slavery Violence: Sectional, Racial, and Cultural Conflict in Antebellum America*, ed. John R. McKivigan and Stanley Harrold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9); Junius P. Rodriguez, "Ripe for Revolt: Louisiana and the Tradition of Slave Insurrection, 1803-1865" (Ph.D. diss., Department of History, Auburn University, 1992); Lacy K. Ford, *Deliver Us from Evil: The Slavery Question in the Old So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Nathan A. Buman, "'To Kill Whites': The 1811 Louisiana Slave Insurrection" (Master's thesis, Louisiana State University, 2008)

49) Rothman, *Slavery Country*, 54-70;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27-30.

50) "Memorial to Congress by Permanent Committee of the Natchez District," October 23, 1797, reprinted in Carter, *Territorial Papers of the Unit-*

노예제도와 팽창주의가 이상야릇하게 결합한 이러한 논증 과정에서 그들만이 인종주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시야에서는 오직 흑인만이 노예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적합한 노동력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사실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 백인보다 흑인들이 사회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연의 시련에 견뎌낼 수 있는 그들의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백인보다 훨씬 뛰어나게 자연 생태학에 순응하여 살아올 수 있었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이들을 이런 특징을 야만성으로 이해하였을 뿐이고 진화과정에서 열등한 상태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므로 노예로 간주하고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⁵¹⁾

이러한 논증을 쫓아가고 있는 백인들의 관점에서는 노예가 없다는 것은 미시시피 계곡의 경제 발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지역의 발전과 진보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믿게 된다. 노예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특히 서구 유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 또한 존재하고 있어도 곧 사라질 것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그 잔인의 인간상품과 노동제도가 시간을 거꾸로 하고 바로 이곳에서 부활하고 확대되고 있었다. 산업 혁명과 세계경제의 활황 속에서 이득을 누리고 있는 이들 백인집단은 그들만의 인종적인 계서제, 그들만의 이해와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다.⁵²⁾

결국 노예제도의 도입과 확대에 대한 논쟁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퍼슨의 견해와 비슷한 결론으로 정리된다. 제퍼슨이 생각했던 결론이란 무

ed States, vol. 5, 10-11.

51) Rothman, *Slavery Country*, 54-70;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27-30; "Memorial to Congress" Ibid.

52) Ibid.

엇인가? 그는 아이티혁명과 같은 일이 미국의 새로운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염려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예제도와 그들의 노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안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⁵³⁾

첫 번째 문제는 미국의 탄생과 함께 이어져 온 고민 중에 하나였다. 그러므로 단지 19세기 미국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18세기에도 노예반란에 대한 공포는 있었다. 미국의 탄생과 함께 해온 노예반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간적인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퍼슨은 새롭게 확대된 미국 국적의 땅에 노예제도를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노예제도가 이 땅에 들어와도 결국 이 거룩한 자연이 이 제도를 스며들게 하여 궁극으로 자유민의 세계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노예제도를 인위적으로 제거, 또는 해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스며 사라지게 될 전망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⁵⁴⁾

새로운 미국이라는 공간에서의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예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그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땅이 미국의 백인 시민들의 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 문화에서 그들 노예들도 스며들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해결점이었다. 그런 관점이라면 미국에서 일어날 인종적인 공포를 제거하고 막기 위해서도 이곳에서는 노예제도가 확대되어야 했다.⁵⁵⁾

53) Ibid.

54) Ibid.

55) Ibid.

제퍼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이러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켄터키의 존 브레켄리지(John Breckinridge of Kentucky)의 경우이다. 그는 미시시피 계곡에서의 노예제도 확대 문제는 명실상부하게 이 지역을 완전히 미국 국민경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들 아프리카 인종들의 피와 색깔을 흐트러트려서 결국 희미하게 만들 것이고 이와 더불어 현재 미국의 남부에 집중되고 있는 이들 흑인종과 그들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었다.⁵⁶⁾

당시의 기준과 조건에서 보면, 흑인 인구를 대륙의 그 넓은 지역으로 분산하면서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흩트리게 할 수만 있다면”(diffused) 노예제도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를 비롯한 제퍼슨과 그의 추종자들은 믿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에서 볼 때 노예반란과 폭동은 특정 좁은 지역 안에 인구밀도가 너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미국 영토로 편입된 그 광활한 영토인 이곳 미시시피 계곡의 자연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노예제도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지역은 유럽의 수십 개의 국가들이 다 들어가고 남을 크기의 영토였기 때문이다.⁵⁷⁾

미국과 유럽에서 보이는 여러 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퍼슨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탐험대를 동원한 이 지역에 대한 탐험은 확장의 꿈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탐험대는 저 멀리 극서지역에까지 이른다. 당시에는 이 지역을 원주민에게 중요한

56) Brown, “Documents”, 354.

57) Rothman, *Slavery Country*, 54-70;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27-30.

자연으로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었다.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이들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위정자들은 그랬다. 다만 그들의 생각에는 이 무한정한 땅이 주어진다면 미국의 동남부의 지역에서나 또는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언제 또 일어날 수 있는 노예와 연관한 폭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공간에서는 흑인들의 인종적 밀집을 줄일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⁵⁸⁾

이러한 생각의 프레임이 결국 이후의 국가적인 위기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은 몰랐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의 전제가 이러한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과학과 이성적인 생각에서 확신하고 출발하고 있지만 그런 사고에 대한 반증가능성을 가질 없는 합리주의적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실의 문제에 너무 안주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남북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전쟁은 제퍼슨과 그 추종자의 생각의 저편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 지역에 노예제도를 이식시킨 그들에게서 단서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⁵⁹⁾

사실 이러한 역사의 비극적 과정은 단지 한 개인과 특정 집단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회는 법안을 통해서 “선의”(bona fide)를 가진 노예소유자들이 자신의 소유 하에 있는 노예를 미시시피강 수계 지역으로 유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미시시피 계

58) Ibid.

59) Ibid: Malcom J. Rohrbough, *Trans-Appalachian Frontier: People, Societies, and Institutions, 1775-1850*, third edi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184-186, 536-537, 538, 539, 540, 542.

곡으로 노예제도가 확대하는 책임을 제퍼슨과 그 추종자에게만 한정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가 흑인 “분산”(diffusion)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한 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괴물 키메라를 만드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산정책으로 인하여 18세기 말에 쇠퇴하고 있었던 노예제도가 이제 19세기에 다시 부활 확대 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다.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말이다.⁶⁰⁾

결국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지표를 이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800년 미시시피 주와 루이지애나주 지역에서 약 10만 명의 노예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1840년에 오면 이 지역의 노예들의 인구는 25만으로 증가하였고, 1860년대에 오면 숫자는 75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⁶¹⁾

결국 미국 정부에서도 미시시피 계곡에서의 노예제도의 경로를 결정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들이 의회에서 결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이러한 법률 안을 실행하게 되면 흑인노예 분산정책은 결국 성공할 것이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 노예제도는 서서히 문명화라는 이름하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²⁾

제퍼슨이 가슴 한곳에 두고 있었던 그 공포는 결코 분산정책으로 해결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의 공포는 유명이 되어서 미국의 역사를 떠들게

60) Rohrbough, *Trans-Appalachian Frontier*, Ibid.; Rothman, *Slave Country*;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27-30

61) U.S. Census, 1820, 1840, 1860.

62) Rohrbough, *Trans-Appalachian Frontier*, Ibid.; Rothman, *Slave Country*;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27-30.

된다. 결국 파국으로 돌진하는 남북전쟁에까지 뇌관으로 작동하게 된다. 바로 미시시피계곡이라고 부르는 또는 루이지애나 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에서의 노예제의 확산 문제가 결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 문제로 발전되어 가고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한 공간의 특수한 역사적인 경험이 전체사에 충격을 가하고 그 진로에 모멘텀을 행사하게 되는 중요한 한 보기이다.

IV. 결론

역사가 아담 로스맨은 미시시피 계곡을 미국 영토로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정치, 외교, 군사적인 압박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면화왕국(Cotton Kingdom)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다른 아닌 “성취”(fulfilled) 과정 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문제가 결국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저서의 많은 부분을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토 확장과 이른바 딥사우스(Deep South)라고 불리어지는 지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고나서 마지막 장을 “노예제 국가의 완성”(Fulfilling the Slave Country)이라고 정의한다. 그가 왜 마지막 장의 제목을 그렇게 정의하게 되었을까? 제퍼슨의 견해와 관점,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았던 “자유의 제국”은 궁극적으로 노예제를 이 지역에 확대하는 직간접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주장을 더더욱 방증하고 있다. 이 지역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금융자본과 신용자본이 투입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면화생산을 주도하는 19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편입되게 된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본다면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결론의 장의 제목을 그런 방식

으로 정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이제 다시 미국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또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계경제 성장 하에서 미국의 장래를 기획하였던 정치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소환해보자. 이른바 “1800년 혁명”이라는 대업을 이루고 대통령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 토마스 제퍼슨과 그의 추종자들의 관점들을 말이다. 그들은 미국이 미시시피 계곡을 자신들의 “광역” 안에 집어넣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외적인 발전 경로를 상상하고 실현하려고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은 농업을 통한 이상적인 국가의 실현을 꿈꾸었다. 물론 그들이 순수하게 그런 의도에서만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는 역사가들의 고담준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기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철저히 미국의 국내정치, 국내경제, 국내사회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미국 국민주의 주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토지조사사업에서부터 노예반란에 대한 조치와 해적소탕운동은 바로 그 일환의 하나였다. 이러한 운동은 이후에도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나 미국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앤드류 잭슨의 군사적인 행동으로부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마무리하게 되는 인디언 강제이주 정책들도 제퍼슨과 그 추종자들에 의한 이 지역의 미국화를 위한 국민주의 운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제퍼슨과 그 추종자들은 이 지역의 장래를 기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노예제도를 이 지역에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면화를 주된 생산품으로 해서 이 지역은 발전시킨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 또 하나 이 강대한 토지를

63) Rohrbough, *Trans-Appalachian Frontier*, Ibid. Rothman, *Slave Country*, 제5장 “Fulfilling the Slave Country,” 165-216 참조.

중심으로 농업 제국을 만들어보겠다는 정치공학이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토지경지를 40에이커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정리하고 구분지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자연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념화, 추상화하는 이러한 방식은 바로 전형적인 미국적 국민주의의 고착화를 만드는 사회 문화화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을 대체가능한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작의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출현한 인위적이고 대안적 자연은 또한 대안적인 생산수단과 양식을 탄생케 하였다. 바로 이런 자연의 조정에서 면화생산이 준비된 것이다. 인간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예시장도 결국 이런 인위적인 자연의 실천에서 만들어졌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경계를 활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대적인 물류거래방식도 나타나게 된다.

다양한 은행권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용하던 경화나 또는 국가지정대표 통화를 대체하고 있었다. 허상의 자본주의 경제가 탄생하고 그 매개물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허위와 가짜가 지배하게 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었다. 거래를 조정하는 상상의 물건들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며 화폐유통경제는 날이갈수록 위태로운 추상화 작업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점차 거대한 땅과 경작하는 노예가 이제 지폐와 경화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체 하게 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적어도 근대 국가로의 발전 경향을 볼 때 아주 드문 것이다. 예외적인 복고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노예제도, 노예왕국, 면화왕국 이런 조어들이 자연스럽고 이곳에 스며들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19세기 미시시피 계곡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이상야릇한 인위적이고 추상화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생태학적 역사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주목 받고 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역사를 생태학을 통해서 발굴하고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자연과 생명세계를 이른바 미국적인 방식으로 추상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특정인간이 어떻게 명들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역사이야기이다.

결국 그들 제퍼슨주의자들의 이상과 실천 과정에서 보여준 역사는 파국의 연속이고 그 여진은 지금도 실시간 전해지는 미국의 뉴스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의도와 실천에서의 한계가 보여주는 역사의 모범적인 경우를 말이다. 위대한 정치경제학자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영키고 성긴 비극의 역사 말이다.

(2020.12.09. 투고 / 2020.12.14. 심사완료 / 2020.12.24. 게재확정)

[Abstract]

The Jeffersonian Political Economy:
The Mississippi Valley and Slavery

Yang Hong-Seuk

To date, most studies about Thomas Jefferson's political economy and its national Territory have largely overlooked the meaning of "Empire for Liberty."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his statement, which lead to national territory expansion in the Mississippi Valley. Ultimately, I said his vision and reality did not correspond to his original intention, and it is his great paradox in th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 Keyword

The Mississippi Valley and Slavery, Thomas Jefferson, Empire for Liberty, Theory vs. Practice

[참고문헌]

양홍석, 「미국국가기원론에 대한 논의-州主權論(States Right)의 탄생과 발전-」, 『동국사학』, 41집, 서울, 동국사학회, 2005.

양홍석, 『美國政治文化의 傳統과 展開-잭슨시대(Age of Jackson)를 중심으로-』, 서울: 국학자료원, 1999.

하성호, 『아메리칸 시스템의 흥망사, 1790-1837』, 양홍석 옮김, 서울, 학고방, 2014.

Berlin, Ira, *Many Thousands Gone: The First Two Centuries of Slavery in North Americ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Brown, Everett S. ed., “Documents: The Senate Debate on the Breckinridge Bill for the Government of Louisiana, 1804,” *American Historical Review*, 22:2. 1917.

Dain, Bruce *A Hideous Monster of the Mind: American Race Theory in the Early Republ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Daniel J. Boorstein,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Chicago: Phoenix, 1958.

Daniel J. Boorstein, *The Americans: The National Experience*, New York: Vintage, 2010.

Din, Gibert, “Spain’s Immigration Policy in Louisiana and the American Penetration, 1792-1803,” *Southern Historical Quarterly* 76, January 1973.

Dubois, Laurent, *Avengers of the New World: The Story of the Haitian Revol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Ellish, Richard E., *The Union at Ris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Furstenberg, Francois, "Beyond Freedom and Slavery: Autonomy, Virtue, and Resistance in Early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9, March 2003.
- Isenberg, Nancy, *White Trash: the 400-Year Untold History of Class i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16.
- James, C. L. R.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an Revolution*, rev. 2nd ed. New York: Vintage Books, 1963.
- Jefferson to Madison, April 27, 1809, Jefferson Writings, 12:277, quoted in James E. Lewis, *The Louisiana Purchase: Jefferson's Noble Bargain?* Chapel Hill: Thomas Jefferson Foundation, 2003.
- Jefferson to John Lithgow, January 4, 1805, in *The Writings of Thomas Jefferson*, ed. Andrew A. Lipscomb and Albert E. Bergh, Washington, DC: Thomas Jefferson Memorial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1903-1904.
- Jefferson, Thomas,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ed. William Pede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55.
- Johnson, Walter,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 Lewis, Jr., James E. *The American Union and Problem of the Neighborhood*.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9.

Madison to Lafayette, March 20, 1785, in *The Papers of James Madison*, ed. William T. Hutchinson et al., 17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1977.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77-1991, 8.

McCoy, Drew, *The Elusive Republic Political Economy in Jeffersonian America*, New York: W. W. Norton, 1980.

Onuf, Peter S. “‘To Declare Them a Free and Independent People’: Race, Slavery, and National Identity in Jefferson’s Thought,”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8, Spring 1998.

Onuf, Peter, “The Expanding Union,” in *Devising Liberty: Preserving and Creating Freedom in the New American Republic*, ed., David Thomas Koni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aquette, Robert L. “Revolutionary Saint Domingue in the Making of Territorial Louisiana,” in *A Turbulent Time: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Greater Caribbean*, ed. David Barry Gaspar and David Patrick Geggus,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1997.

Peterson, Merrill D. *The Jeffersonian Image in the American Mind*, New York, 1960.

Rothman, Adam, *Slavery Country: American Expansion and the Origin of the Deep South*,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Rohrbough, Malcolm J., *Trans-Appalachian Frontier: People, Societies, and Institutions, 1775-1850*, third edi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Schlesinger, Arthur H. “The State Right Fetish”, *New Viewpoints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1922.

Slorkin, Richard, *Regeneration through Violence: The Mythology of the American Frontier, 1600-1800*,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3.

Smith, Ronald D. "Napoleon and Louisiana: Failure of the Proposed Expedition to Occupy and Defend Louisiana, 1801-1803," *Louisiana History* 12, Winter 1971.

Whitaker, Arthur Preston, *The Mississippi Question 1795-1803: A Study in Trade, Politics, and Diplomacy*,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1934.

Wood, Gordon S. *The Radicalism of the American Revolu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92.

